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주필

뉴욕의 공원에서 어느 거지가 '나는 앞을 못 봐요'(I Am Blind)라고 적힌 팻말을 건 채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팻말의 글을 이렇게 바꿔 주었다. "곧 봄이 찾아오지만 나는 봄을 볼 수 없다오."(Spring is coming soon. But I can't see it) 이후 놀랍게도 사람들의 적선이 이어졌다. 그 남자는 프랑스의 시인 앙드레 불톤(1896~1966)이었다.

하지만 불톤은 그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시인 푸시킨(1799~1837)을 흉내 낸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푸시킨 역시 어느 날 모스크바 광장에서 걸인의 팻말에 이렇게 써 준 적이 있었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그렇다면 이것은 그의 창작이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동시대 영국의 시인인 셸리(1792~1822)의 시에 이런 구절이 보이니까. "겨울이 오면 어찌 봄이 멀 수 있으랴?"(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오늘 갑자기 여러 시인을 들먹거리고 특히 푸시킨을 언급하는 것은 순전히 코로나19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처럼 푸시킨도 역병(疫病)을 경험한 적이 있다. 1830년 콜레라 대유행으로 모스크바는 봉쇄되었고, 시인은 석 달간 작은 영지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새옹지마(塞翁之馬)였을까. 푸시킨은 3개월의 완벽한 고립 속에서, 영화 '아마데우스'의 원작이 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등 여러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푸시킨도 역병에 갇혔지만

알렉산드르 푸시킨(1799~1837)은 우리에게 저 유명한 시(詩)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의 작가로도 친숙하다. 그 옛날 '바리캉'(bariquand, 프랑스어)으로 머리를 깎던 어린 시절 이발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었던 시. 밀레의 '만종' 같은 복제된 명화와 함께 걸려 있던, 한때 전국의 이발소를 평정했던 바로 그 시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푸시킨은 스물여섯 살 되던 해, 이웃에 살던 열다섯 살짜리 소녀에게 이 시를 써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노여움을 참지 못해 일찍 생을 마감했다. 아내와의 염문에 휩싸인 사내에게 결투를 신청했고, 그때 얻은 상처로 일찍 죽은 것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간다'고 시인은 노래했건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날들은 금방 지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이미 6개월을 넘겼다. 사람들은 마음 놓고 외식 한 번 하지 못한 채 하릴없이 집안에 갇혔다.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사는 이런 세상이 오리라 그 누가 알았으랴.

지난 주말에는 부모님을 일주일마다 찾아뵙는 '주례 행사'도 생략해야 했다, 바이러스가 드디어 우리 동네까지 침범했다는 소식에 혹시 몰라 조심한 것이다. "이럴 땐 서로 안 만나는 것이 상책이지야." 구순(九旬)을 넘긴 아버님은 짐짓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화선을 타고 들려오는 목소리엔 '힘아리'가 없는 듯 느껴졌다. 아, 코로나가 부모 자식 간도 갈라놓는구나.

코로나 청정지역 광주가 어쩌다 지금은 이토록 위험지대가 된 것일까. 200명이 채 못 되는데도 마치 난리가 난 것 같은 느낌인데, 7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대구 사람들은 얼마나 징했을까 싶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투란도트가 낸 수수께끼에 나오는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밤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아침이 되면 죽는 것.'-바로 '희망'이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네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네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괴로운 마음에 대고 매 시간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미국 시인 랜터 윌슨 스미스(1856~1939)의 시다.

이 시에 나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는 다윗 왕의 반지에 새겨진 문구로도 유명하다. 반지 세공사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 새겨 넣었다는, 승승장구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며 절망에 빠졌을 때도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글귀. 그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도 딱 어울리는 듯하다. 코로나가 잠시 잠잠해졌다 해서 마음을 놓지도 말고, 역병이 또다시 창궐한다 해도 참고 견디라는 말 아닌가.

그럼에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답답한 날들의 연속이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늘 도서관에서 소일했던 한 선배가 최근 문자를 보내왔다. 많은 공공시설이 휴관하는 바람에 날마다 집에서 보내자니 너무 답답하다는 거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대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임석재,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글을 읽어 본 후 가공 재생산이 가능할지 검토해 보라는 부탁도 곁들이는 것이었다.

언젠간 가겠지 답답한 이 세월

그래서 찾아 읽어 보았더니 '공공도서관의 휴관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과연 도서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를 묻는 내용이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면 안 되니 문을 닫고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생각, 그것은 어쩌면 '안전'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또 다른 형태의 소극행정 또는 기피행정은 아닐까 통렬히 묻는 내용이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었다.

다행히 이번 주부터 수도권 공공시설이 문을 열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찾아보니 훨씬 이전에 부분 개관을 한 곳도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도서관으로, 이곳에서는 열람실도 이용할 수 있었다. 대신 전체 350석 중 109석만 착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탄력적인 운영. 바로 이게 '공공'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도서관의 존재 이유 아닐까. 그러나 이는 일개 도서관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테고, 아마도 해당 자치단체장의 협조와 결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 지역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 혹은 5·18기록관 같은 곳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코로나로 인해 갇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창의적인 생각과 정책을 내놓는 그런 공무원을 만나고 싶다.

그나저나 하루하루가 참 힘들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엉망이 됐다. 괴로운 나날들이다. 그래도 이 또한 언젠간 지나갈 것이다. "회오리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 푸시킨의 시 구절과도 일맥상통하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다. 지금 우리가 혹독하게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다만 지나가는 한 줄기 소나기와 같기를! 묵묵히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수많은 의료진에 한없는 존경을 표하면서.

'예배 외 모임금지' 24일 오후 6시 해제…광주는 2단계 그대로

22일 오후 광주 북구청 효죽공영주차장에 마련된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중대본, 교회 방역 조정안 발표…해제 뒤에도 방역수칙 당부

전국적으로 정규예배 외 교회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24일 오후 6시 해제된다. 정부는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할 경우 현행 의무화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중인 광주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를 그대로 적용하며, 실내 50인 미만 종교행사시엔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행정조치도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의 교회 방역강화 조치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교단과 신도의 이해와 협조로 교회 등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뒤에도 예배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후 신규 확진자 감소와 함께 교회 집단감염 사례도 줄어들자 정부는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관련 행정조치(집합제한) 해제를 결정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조치가 해제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지금의 행정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광주의 경우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교회방역 의무화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앞으로 이 같은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내릴 때는 집단감염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해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시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문 대통령 "방역 인력 휴식 필요"…지원방안 검토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방역 인력의 최소한 휴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배려 및 관계 부처의 지원 검토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장기간 코로나19 대응과 여름철 무더위로 방역 인력의 고생이 크고 휴가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방역 인력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력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방역 인력에 대해 "휴식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전남 정수장 77곳 유충없어
대책반 구성 지속 점검키로

전남도는 도내 77곳의 정수장에 대한 특별위생 점검 결과 이물질인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인천 공촌·부평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정수장·배수지 등 수도시설에 대한 특별 위생관리에 들어갔다.

이달 17일부터 시작된 도내 지방 상수도 정수장 77곳과 배수지 등에 대한 점검 결과 현재까지 모든 정수장에서 유충이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천과 유사 공정(입상 활성탄)으로 운영 중인 고흥 호형 정수장에 대한 점검에서도 이물질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수도시설 특별위생관리를 위해 앞으로 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 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소규모 수도시설까지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정밀 조사· 실시간 민원 동향 파악·현장 대응·정수계통점검·수질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상황 확대시 사고원인 파악·복구지원·홍보 등을 맡는다. /김형호 기자 khh@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주)제이엠신용정보 직통전화 062)416-6226 010-6833-16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藝鄕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지국안내

북 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봉 433-1503	·우 산 433-1503	
동 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충 장 222-8171	
남 구	·남 부 675-5530	·백 운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 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첨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	

분 할 합 병 공 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한국태양광에너지(이하 "갑"이라 함)와 아세아전기 주식회사(이하 "을")은 2020년 07월 20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게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20년 07월 23일

"갑" 상 호 : **주식회사 한국태양광에너지**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153
대표이사 : 박 영 서

"을" 상 호 : **아세아전기 주식회사**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5길 165-2
대표이사 : 문 성 필

합 병 공 고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연흥종합조경 주식회사 (갑)과 주식회사 다음건설(을)에서는 각각 2020.07.22.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갑" 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제일 익일 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한 신주권교부를 위하여 "을"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위의 기간 내에 "을"의 본점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 년 07 월 23 일

(갑) **연흥종합조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665
대표이사 김 진 길
☎ 062-511-3200

(을) **주식회사 다음건설**
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 14-1 2층
대표이사 김 진 길
☎ 061-381-0475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준환(720929-XXXXXXX)
- 최후주소 :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108 108동 313호(월곡동, 한성아파트)

피상속인 망 김준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3388호로 신청하여 2020년 7월 2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7월 23일

- 상속인 : 1. 김지성(061128-XXXXXXX)
  2. 김지혜(090118-XXXXXXX)
  상속인 1, 2의 주소
  -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108, 108동 313호 (월곡동, 한성아파트)
  청구인들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신미화
- 신고기간 : 2020. 7. 23 ~ 2020. 10. 1.
- 채권신고장소 :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신미화의 주소

산행안내

7월25일(토)

▲광주호산회 7월25일(토) 함양 영취산 부전계곡,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7월26일(일)

▲광주자연보전답사회 7월26일(일) 산청 웅석봉 달뜨기능선 - 백운계곡, 염주체육관 07:00, 무등경기장 07:20, 동광주홈플러스 07:4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7월29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29일(수) 경남 밀양 구만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8월1일(토)

▲광주금당산악회 8월1일(토) 지리산 서산대사길 대성계곡 트래킹, 봉선동롯데마트앞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 염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7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